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50127-중-67676
하지정맥류
별 수외과의원 423-7582

每日新聞

심의필 제190417-중-92405호
23년 비수술 척추·관절·통증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T_053.222.3535
2호선 범어역 11번출구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음력 9月 20日 丙午)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8~20℃ 구미 6~19℃ 안동 5~19℃ 포항 10~20℃ 제23752호

국힘 본경선 이번주 결판

내달 1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尹·洪 서로 부인 두고 공방
劉 "두 후보 도긴개긴이다"
元 "검증 불편하면 왜 나와"
마지막 일주일 설전 최절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종반을 향하는 가운데, 후보 간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달 1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후의 일전을 벼르는 모습이다. 4·5면

'양강' 윤석열·홍준표 후보는 24일 서로의 부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 사과' 인스타그램 글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다"면서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부인 김 씨를 겨냥해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유명 인사가 아닌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두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그건 국회의원을 할 때도, 지난 대선을 할 때도,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회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캠프 인선을 두고도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윤 후보가 김태호·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영입하자, 홍 후보는 "공천은 엄연히 당대표 권한인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면서 선대위에 뒤늦게 영입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유승민 후보는 두 후보의 설전을 도긴개긴으로 평가절하하며, '멀쩡한' 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멀쩡한 후보 놔두고 왜 고민하십니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상대방의 전과, 비리, 막말, 망언을 두고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이라며 "두 분이 구사하는 언어도 품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피장파장이고 도긴개긴 아닙니까?"라고 썼다.

원희룡 후보는 부인 강윤형 씨의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과 관련한 여권의 맹공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모든 검증 과정들이 불편하고, 불만이시면 대통령 선거 안 나오시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토론회 ▷27일 강원 합동토론회 ▷29일 1대1 맞수토론 ▷31일 종합 토론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한다. 경선 레이스 마지막 일주일간 후보 간 공방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9면

JOB아라
청년 취·창업 특집
▶14~17면

4차순환도로 내년 2월 개통

24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와 도시외곽순환도로(4차 순환선)가 만나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지천분기점 2공구 현장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 외곽을 크게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 공사가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14년 3월 공사를 시작한 4차 순환도로는 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대구경북 접종률 평균 이하

〈66.7%〉 〈69.9%〉 〈70.1%〉

정부 오늘 방역 계획 공개
대구 외국인·청소년 접종 독려
성주·군위·청송·의성은 80%대

다음 달 초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접종완료율은 66.7%로, 전국 평균(70.1%)보다 낮게 집계됐다. 3면

당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접종완료율 70%를 내세운 바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서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한 것이다.

대구의 접종률이 전국보다 낮은 데는 외국인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접종률과 사전예약률이 그만큼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기준 대구 지역 대학 9곳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 5천400명의 접종완료율은 25.5%로, 대구시 평균 접종률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6~17세 청소년의 접종 사전예약률은 전국이 50%를 넘은 데 비해 대구는 40% 미만에 머물렀다.

시는 최근 들어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과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종 안내가 적극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구수(지난해 말 262만3천28명) 대비 접종완료율은 69.9%를 기록했다. 전국 접종완료율이 70.1%인 점과 비교하면 0.2%포인트(p)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시군별로 보면 성주군이 83.0%로 전체 1위였고, 군위와 청송군이 80.2%, 의성군이 80.1%로 뒤를 이었다.

접종률이 낮은 순서로는 구미시가 60.9%로 최하위였고 칠곡군 67.2%, 포항시 67.9%, 김천시 69.1%, 안동시 69.6% 등이었다. 구미시는 경북 전체 접종률보다 9%p나 낮아 적극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18일부터 완화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제한과 맞물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들이 확산세에 다시 불을 댕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나 돌파감염은 여전히 변수여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을 적극 해야 위드 코로나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계획은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7일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에서 4개 분과(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과제들을 정리한 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대국민 발표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이르면 1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대구행복페이 800억 추가 발행 월 충전한도 100만원으로 늘려

코리아세일페스타 경제효과 기대
내년엔 모바일 결제 기능 탑재 예정

올해 조기 소진된 대구행복페이가 내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800억원 규모의 재발행을 알리며 부활한다. 대구시는 월 최대 충전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구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5일)에 맞춰 800억원 규모의 대구행복페이를 특별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발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진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10%이며, 8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대구행복페이 판매는 종료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카드당 최대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잔액 사용 후 재충전이 가능하다.

대구행복페이는 할인율 최대 10%와 다양한 결제 이벤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지난해 3천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1조430억원을 넘기며 성공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발행된 9천630억원의 일반 판매량은 지난 20일 모두 소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행복페이의 사용처는 음식점이 1천728억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고, 슈퍼마켓 1천21억원(13.9%), 농축수산 부문에 652억원(8.9%)이 사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까지 추가 탑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행복페이 특별 추가 발행이 시민들에게는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일제점검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추락·끼임 위험현장을 일제점검합니다.